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전통의복부문

여자복식

심화연구자 홍 나 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CONTENTS

제1부 디자인DNA 심화연구

1장 한국의 여성복식에 표현된 아름다움

- 1절 평면구조
- 2절 재료의 미
- 3절 절제의 아름다움
- 4절 울동의 미

제2부 대표디자인

1장 여성복식

- 1절 삼국시대의 여성복식
- 2절 통일신라시대의 여성복식
- 3절 고려시대의 여성복식
- 4절 조선시대의 여성복식

■
제 1부

디자인DNA 심화연구

1장 한국의 여성복식에 표현된 아름다움

한국 전통복식은 이천년 이상을 내려왔으며 오늘날 한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복의 전형적인 모습은 19세기의 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관상으로는 한복이 삼국시대의 우리 옷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구조는 변함이 없이 내려오고 있다. 즉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라는 위 아래로 나누어진 이부식(二部式)의 옷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의복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길이와 세부적인 형태, 무늬와 세부 장식 등에서는 시대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전시대를 아우르는 한국 전통복식의 특징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겠지만 18세기~19세기의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여성전통복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몇 가지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1절 평면구조

우리나라 옷은 서양의 옷과는 달리 평면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물론 일본과 중국의 옷도, 다른 아시아의 전통복도 평면적이다. 서양의 옷이 인체의 곡선에 맞게 재단되어 인체의 선을 드러내는 것에 비해 옷감의 식서를 이용해 직선적으로 재단한 아시아권의 복식은 비교적 인체의 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물론 옷의 크기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선전기의 저고리는 품이 크고 넉넉하며 길이도 길어 신체선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점잖고 품위 있는 반면 19세기 여성의 저고리는 매우 짧고 작기 때문에 여성의 상체에 밀착되고 여성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가슴을 허리띠로 압박하여 저고리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런 가슴의 곡선을 드러내는 서양의 복식과는 전혀 다른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또한 평면적인 구조는 착용자가 옷을 입을으로써 그 조형이 완성되는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착용자의 정확한 신체 치수가 필요 없고 적당히 여유를 두고 만들어 입음새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는 융통성이 있으며 신체와 옷 사이의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내는 구조였다.

2절 재료의 미

한국의 복식은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스런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

들었다. 예를 들어 자수와 같은 장식이 왕실과 양반층의 복식에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활옷을 제외하고는 부분적인 장식에 그쳤다. 금박의 경우에도 대부분 왕실과 사대부가의 예복에 한하였고, 의복 전체를 금박으로 덮는 경우는 없다.

무엇보다 일상복으로서의 우리 옷은 재질의 특성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어 발달되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전통복식은 우리나라의 뚜렷한 사계절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따라 의복의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 결과 계절별로 여름에는 삼베와 모시, 겨울에는 면직물이나 견직물 그리고 동물의 털가죽 등을 사용하는 등 각각의 다른 재료를 특성에 맞게 사용하였다.

물론 고대에는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려한 무늬를 염색하는 기술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스민 무늬’ 즉 단색에 직물의 문양만을 직조로 나타낸 것을 선호하여 무늬 염색법이나 이캣트와 같은 화려한 선염직물은 쇠퇴하였다.

무늬의 화려함 보다는 오히려 풀 먹이고 다듬이질과 다림질로 손질한 옷감에서 느껴지는 뽀뽀한 긴장감과 바삭거리는 재질감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견직물의 경우에도 정련을 하지 않은 생사를 여름철 소재로 즐겨한 것을 보아도 뚜렷하다.

또한 무명과 삼베 등의 재료를 하얗게 비래어서 혹은 생모시나 안동포와 같이 원래의 색상 그대로 사용한 의복은 단순하며, 소박하고 담백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3절 절제의 아름다움

한국의 복식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라는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 덧붙이고 꾸미는 것은 어린이에게는 용납되는 일이지만 성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하거나 소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맛밋함을 벗어나기 위해 장식이 들어갈 경우에는 작은 장식이 부분적으로 살짝 가해짐으로써 악센트 역할을 하는 것을 선호하였을 뿐 장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기피하였다. 특히 회화나 도자기에서 여백의 아름다움처럼 복식에도 꼭 채우는 구도 보다는 여백이 있는 구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특색은 백색과 담색을 즐기는 색채관과도 일맥상통한다. 오방색을 귀히 여겼다고 하지만 그것은 색채관념이며, 왕실이나 관복에 한정된 것이었다. 일상복은 늘 연한 색조를 주조로 하거나 짙은 색상이라 하더라도 들뜨지 않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절제된 색조를 즐겨 하였다.

특히 깃에 단 하얀 동정과 소매 끝에 단 거들지는 떼어내어 세탁하기 쉬운 위생적인 면도 있지만, 단정한 분위기와 절제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요소였다.

한편 긴장된 선(線)에서도 절제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벼선코와 저고리의 싹코, 당의와 원삼의 도련 선은 이완된 완만한 선이 만나는 모서리의 마무리를 살짝 뽀족하게 올라가게 함으로써 예민하고 긴장된 선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긴장된 곡선의 사용은 한국적인 선으로 지칭되지만 이 역시 철저히 절제되어 의복의 한두 군데에만 살짝 더해질 뿐이다.

4절 율동의 미

우리 옷은 몸에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흐르는 자연스런 선과 여유로움이 중요한 조형적 요소를 형성한다. 특히 여자의 치마 같은 경우 넓은 폭에 잔주름을 잡아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혹은 치마를 치켜 올리는 입음새에 따라 선의 변화가 나타난다. 치마허리의 끈과 옷고름도 마찬가지이다. 고름은 여미를 위한 도구이지만 바람에 나부끼는 선을 율동감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위엄과 권위가 강조되는 궁중예복에서 조차 길게 느린 대대(大帶)의 끈이나 왕비 적의(翟衣)에 두른 긴 하피(霞帔), 머리에 쓴 화관이나 족두리의 떨리는 장식품 등은 모두 율동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요소들이다.

■
제 2부

대표디자인

1장 여자복식

오늘날의 한국의 전통복식이라 함은 대부분 19세기의 복식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복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조선 후기인 18세기에서 19세기의 복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디자인 DNA심화연구를 위한 대표 디자인 선정은 조선후기와 말기의 복식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 옷의 DNA는 역사기록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자료가 존재하는 삼국시대부터 20세기까지 전반적인 시대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표디자인 자료의 선정은 삼국시대부터 서양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인구가 한복인구를 초과하게 된 1960년대까지의 복식을 선정 대상에 포함하였다. 특히 개화기 이후 1960년대까지의 복식은 20세기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여성복식 디자인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시대별로 살펴보면, 삼국시대의 복식은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가 고구려 벽화 외에 없으므로 벽화 인물 중에서 고대 한국 복식의 전형이자 고대 복식의 기본형을 차용한 일반여성 복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여성복식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무덤에서 출토된 토용 밖에 없으므로 토용의 귀부인 복식을 선정하였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도 시각자료가 극히 적은 편이므로, 불화의 귀부인과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해당하는 박익 묘 벽화의 일반 여성의 복식을 선정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복식 유물 위주로 선정하되, 유물로는 확인이 불가능 한 실루엣이나 차림새의 경우 회화 속 인물도를 자료로 선정하였다. 복식유물의 경우 의복은 물론 쓰개와 버선 등도 자료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여자 전통복식의 DNA구축을 위한 복식자료의 선정 기준은 한국전통 여성복식으로서 각 시대와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만한 유물을 위주로 하되, 보다 한국복식의 보편적인 특징을 가진 유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복식자료는 대부분 궁중 복식 혹은 사대부가의 복식에 한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식은 궁중이나 반가라도 일상복은 소재가 좀 더 고급일 뿐 서민과 형태적인 차이가 없고 소재와 가짓수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정된 유물이 궁중과 반가의 복식이라도 우리복식의 DNA를 고찰함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1절 삼국시대의 여자복식

그림 1 고구려 여성복식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 중 대열을 지어 춤을 추는 장면의 일부이다. 대열의 다섯 명 중 두 명의 여성이 긴 포(袍)를 착용하고 있다. 포 밑으로는 주름잡은 치마와 그 안에 입은 바지(袴)가 보인다. 포에는 깃, 도련, 수구를 따라 선(禰)을 돌렸으며, 허리에는 옷감으로 만든 허리띠를 묶었다. 포와 치마(裳)는 A자 모양으로 퍼지는 실루엣이다. 옷감에는 직조 혹은 염색에 의한 무늬가 있으며 두 인물이 서로 다른 색을 착용하고 있어 다채롭다. 소매가 유난히 긴데 이는 춤을 추기 위한 옷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발은 북방계 신으로 알려진 화(靴)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2 고구려 여성복식

고구려 쌍영총의 벽화 중 수레와 여인 행렬의 일부이다. 세 여인은 유사한 모습인데, 머리에는 머리 수건을 두르고 볼에는 붉은 색으로 연지를 그렸다. 치마저고리는 모두 밝은 색이며, A자 형 실루엣을 보인다. 진한 색으로 선을 두른 저고리(襦)는 곧은 깃에 좌임(左衽)이다. 이러한 양식은 고대 우리나라 저고리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다만 곧은 깃 안으로 보이는 붉은 선에 대한 해석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안에 둥근 깃의 옷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고리의 가장자리에는 선(禰)을 돌렸는데 안쪽에 무늬가 보이며 인물마다 무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저고리의 선을 보면 부분적으로 넓은 선 안에 가는 선이 더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 벽화의 복식은 직물의 무늬는 물론이고, 선(禰)의 위치와 수(數) 등이 상당히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치마는 잔주름이 아랫단 까지 곧게 잡혀 있으며 주름으로 인해 울동감이 느껴진다.

그림 3 고구려 귀족 여성복식

고구려 수산리 벽화 중 주인공 부부가 시종과 시녀를 거느리고 교예를 구경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림의 여인은 주인공의 부인이다. 우임(右衽)의 저고리(襦)를 입었는데, 우임은 한(漢)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옷 가장자리에 무늬를 넣은 선(禰)이 둘러져 있고 특히 깃과 소매 끝은 붉은 색으로 하여 변화를 주었다. 저고리의 아래도련과 깃과 수구의 선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 고구려시대 복식에 사용된 섬세한 직물무늬를 볼 수 있다.

하의로는 색동치마를 입었는데 짙고 열게 사용된 색에 따라 리듬감이 느껴진다. 이와 같은 색동치마는 고구려 벽화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카마츠 무덤(高松塚)의 벽화에도 나타나 당시 고대 동아시아 복식문화의 교류를 알려준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하체로 내려갈수록 서서히 퍼지는 A자 형의 실루

옛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여성은 머리를 크게 장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머리를 크게 엷는 풍속은 쪽머리가 보편화된 19세기 이전의 여성들에게 일반적이었던 현상이다. 또한 얼굴을 보면 뺨에 연지를 하고 있어 고대 화장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2절 통일신라시대의 여성복식

그림 4 통일신라 여성복식

경주 황성동 출토 여자 토용은 전체적으로 날씬하고 수줍은 듯한 자세가 당시 여성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가운데 가르마를 반듯하게 가르고, 머리 뒤 통수 쪽으로 압전하게 머리를 쪽찐 모습이다. 가슴 높이 치마를 올려 입었으며, 허리 띠 역시 가슴 높이에서 두른 점이 특징적이다. 즉 저고리 위에 치마를 착용하고, 가슴 높이에서 두른 허리띠는 앞에서 매어 길게 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치마를 높이 매어 입는 착용법은 당(唐)대에 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했던 스타일이다. 긴 소매 자락과 여유 있는 치마 선에서 여유가 느껴지며, 치마 밖으로 살짝 내민 자그마한 발끝이 수줍은 여인의 미소와 잘 어울린다.

그림 5 통일신라 여성복식

경주 용강동에서는 출토된 여자 용(甬)들은 당(唐) 여인상과 비슷한 복장을 갖추고 있어 당시 중국과의 교류를 반영하고 있다. 당대에는 풍만한 여인을 이상으로 여겼다고 하며, 도용의 여인 역시 풍만한 몸매와 높이 엷은 풍성한 머리가 특징적이다. 여인상들 모두 가슴 높이 치마를 올려 입었으며 허리띠를 가슴에 두른 후 앞쪽에서 치마 아래로 길게 늘어뜨렸다. 저고리의 소매는 신분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인공으로 보이는 중앙의 가장 크게 만들어진 여인상의 소매가 가장 넓다. 크고 넉넉한 옷으로 신분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여인상 모두 오늘날의 쇼울(shawl)에 해당되는 표(袂)를 두르고 있다.

3절 고려시대의 여성복식

그림 6 고려말 조서초의 여성 일상복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살았던 박익(朴翊, 1332~1398)의 묘 벽화 중 남동쪽

장벽의 인물풍속도 중 세 명의 여성 인물은 고려시대 여자복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머리모양은 정수리와 귀 양옆 쪽으로 둥글게 말아 올린 머리모양을 하고 있고, 작은 화관(花冠) 모양의 머리 장식이나 머리 끈을 묶은 것이 보인다. 세 인물 모두 옆이 트인 우입의 긴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있다. 저고리는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길고, 옷고름 없이 허리 부근에서 끈으로 여몄다. 저고리 아래로는 끈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치마허리를 묶은 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왼쪽 아래 인물의 허리끈은 특별히 붉은 색으로 되어 있다. 넉넉한 실루엣으로 인해 여유로워 보이며 소박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림 7 고려말 조선초 반가 여성복식

송암공 조반의 부인으로 알려진 정경부인 계림 이씨(?~1433)의 초상화이다. 초상화를 보면 좁은 폭의 치마에 저고리가 허리를 덮은 것이 보인다. 포는 앞을 벌여 입어 안에 입은 치마저고리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치마에는 흰색 치마허리 끈 두개를 앞 중심에 나란히 늘어뜨렸다. 녹색 저고리의 깃과 수구에는 붉은 색 선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는 한삼으로 보이는 속옷을 입고 있다. 곁에 입은 포는 삼국시대의 포와 비슷해 보이는데, 앞을 많이 겹쳐 입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긴 소매의 배자일 가능성도 있다. 짙은 청색의 포와 녹색과 홍색 선이 어우러져 품위 있으면서도 진중한 멋을 보이고 있다. 치마를 저고리 위로 입었던 통일신라시대 귀부인들의 옷차림과는 다른 착장법을 보여준다. 머리에는 커다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데, 조선시대 족두리의 초기 형태로 추정된다.

그림 8 고려 왕비 복식

불화(佛畵)의 일부이지만, 고려 후기 원의 지배를 받던 시기의 왕비 복식을 잘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다. 왕비의 연붉은색 포는 소매가 넓고 수구와 깃 둘레, 도련에 짙은 색 선이 둘러져 있다. 그 밑에는 연한 색의 치마를 길게 끌리도록 입었다. 포(袍) 위에 입은 것은 홍색의 반소매 형식의 옷이며, 넓은 수구에는 백색 주름 장식이 있다. 허리에는 대(帶)를 매고 홍색 매듭이 있는 끈을 길게 끌리도록 하였다. 어깨에는 녹색의 피견(被肩)과 같은 장식이 덮여져 있다. 머리는 화려한 관(冠)을 쓰고 있으며 머리 뒤쪽으로 붉은 색의 땀기가 보인다.

그림 9 고려 여성복식

불화(佛畵)의 한 쪽에 공양물을 가지고 가는 여인상이 묘사되어 있다. 모두 뒷모습으로 좌측 여인은 녹색 포(袍)를 입고 허리에 붉은 색 허리띠를 매고

있다. 오른쪽 여인은 노란 저고리를 화려한 무늬의 붉은 치마 위로 착용하고 있어 저고리를 치마 위에 내어 입던 착장법을 보여 준다. 저고리에는 고름을 매고 있는데 저고리의 길이가 다소 짧아지면서 띠가 없어지고 다른 여밈 수단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치마는 앞에 허리끈이 길게 늘어졌고 치마폭이나 길이가 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든 듯하다. 머리에는 화려한 진주 장식과 붉은 땡기가 보인다. 치마의 문양과 머리를 장식한 진주에서 화려하고 귀족적인 멋이 느껴진다.

그림 10 고려 왕비의 예복

고려 31대 공민왕(재위1351~1374)과 원나라 출신의 노국대장공주(?~1365) 부부의 초상화이다. 그림에서 왼쪽의 노국대장 공주가 입은 옷의 명칭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머리에 쓴 관(冠)과 예복의 실루엣과 문양, 색채 등을 통해 고려 왕비 복식의 장중하면서도 화려한 기품이 나타나있다.

4절 조선시대의 여성복식

(1) 당의(唐衣)

그림 11 17세기 왕비 당의

17세기 초 / 길이 76cm, 화장 90.5cm, 품 52cm

광해군 비(妃)의 길이가 길고 옆트임이 있는 저고리 형태이다. 당의의 초기 형태로 옆선과 도련 부분에서 아직은 곡선화가 덜 진행되었다. 품이 넓고 직선적인 배래와 도련의 실루엣은 17세기 복식의 품위 있고 중후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봉황, 국화, 모란, 연화문이 고급스럽게 제작된 짙은 녹색의 봉황 문단과 흰색의 동정, 자적색의 고름이 어우러진 색상의 조화가 멋스럽다.

그림 12 조선말기 왕비 내곶당의

20세기 초 / 길이 78.5cm, 화장 65.5cm, 품 27.5cm

왕비의 것으로 전해지는 조선시대 말기의 당의이다. 깃과 동정, 거들지의 치수와 곡선적인 형태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 여성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의의 옆선에서 도련으로 이어지는 곡선의 아름다움이 두드러진다. 연녹색의 봉황문단에 양어깨와 길 아래쪽에 걸감과 동일한 무늬가 직금(織金)되어 있어 매우 화려하다. 안감과 고름은 홍색 세주(細紬)를 다듬이질한 명주를 사용하여 걸감의 연두색과 색상의 강한 대비를 이루어 선

명한 느낌을 준다. 길의 앞, 뒤에는 금사로 자수한 오조룡(五爪龍)의 보(補)를 달아 기품을 더하였다. 특히 이 당의는 네 겹 당의로 대부분의 당의가 녹색 겉감에 홍색 안감을 둔 겹옷임에 비해 홍색 안감에 녹색 겉감을 둔 당의 밑에 안팎 모두 홍색으로 만든 겹 당의를 겹쳐 입은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13 공주의 자적 겹당의

19세기 전반 / 길이 71.5cm, 화장 69cm, 품 36cm

덕온(德溫)공주(1822~1844)의 유품인 자색-金 겹 당의이다. 겉감은 자적도 류문단이며 수(壽), 복(福)문자가 약 9cm 간격으로 일정하게 직금(織金)되어 있다. 화려함은 덜하지만 단정하면서도 기품이 있다. 이 유물은 특히 옆선과 도련이 이어지는 부분이 날렵한 버선코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생동감이 느껴진다. 거들지는 끝동과 달리 동정처럼 흰색 옷감 안에 종이를 대어 만들고, 쉽게 떼어 내 부분적인 세탁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당의와 혼례용 저고리에는 흰색 거들지를 달아 예장(禮裝)임을 표시하였다.

그림 14 공주의 녹색 홀당의

19세기 전반 / 길이 73cm, 화장 67cm, 품 36cm

덕온(德溫)공주(1822~1844)의 유품인 녹색 도류사로 된 홀당의이다. 옷 전체에 '수복(壽福)' 자가 부금(附金)되어 있다. 자적 당의 금박과 필체가 달라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 홀 당의로 안감과 겉감의 색상 대비가 없는 대신 자적색의 고름으로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피했다. 역시 옆선과 도련이 만나는 부분의 곡선은 날렵한 맛이 있다. 당의의 안섶에는 것이 달리는 부분에 3~4개의 주름을 잡아 안자락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림 15 녹색 깎은 당한삼

19세기 / 길이 78cm, 화장 70cm, 품 45cm, 진동 21cm

녹색 은조사로 된 깎은 당한삼이다. 깎은 당한삼은 일반 당의와 달리 도련을 정교하게 말아 감치기를 하여 양옆 부분이 안으로 말아 들어가면서 둥근 모양이 되어 입체적인 볼륨감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도련을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한 옷은 궁중에서 한 여름에 입었던 깎은 당 한삼에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홑옷이므로 어깨에는 바대를 대었다.

(2) 저고리

그림 16 금선단 솜 회장저고리

16세기 / 길이 56cm, 화장 73cm, 품 72cm

조선 전기의 저고리는 18세기 짧은 저고리와 형태가 많이 다르다. 이 유물은 16세기의 저고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조선 전기와 중기의 저고리는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품과 깃이 매우 넓다.

회장저고리 형식의 이 유물은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원래의 색상을 알 수 없게 갈변(褐變)된 것이다. 길감은 명주이며 깃, 섹, 수구, 겹마기에는 직금(織金)으로 된 연화만초문(蓮花蔓草紋)이 사용되었다.

깃은 직사각형 형태의 목판깃이며 소매의 배래도 일직선이다. 겨드랑이 부분에는 삼각형 모양의 무가 달려 있다. 고름이 작고 짧은 편이며, 이 유물에서는 소실되어 하나만 남아있다. 깃과 배래, 옆선 등에서 직선적인 느낌으로 다소 딱딱한 해보이지만, 착용하고 나면 여유로운 치수와 솜을 둔 것으로 인해 인체와 어울려 온 몸을 푸근히 감싸는 듯한 실루엣을 만들어내며, 품위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을 것이다.

현재는 소실되어 사라진 직금 부분의 금사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겹섹과 겹마기, 무 등의 직금으로 인해 장중하면서도 화려하였을 것이다.

그림 17 국만초 봉황문단 직금 저고리

17세기 / 길이 49.5cm, 품 46cm, 화장 74cm

이 유물은 이황(1651~1742)의 묘에서 출토된 완산 최씨(1651~1732)의 직금 저고리이다. 국화와 봉황무늬가 넝쿨을 이루어 배치된 직금(織金)으로 깃, 섹, 끝동, 겹마기 등을 장식하여 장중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준다. 넓은 깃과 겹섹으로 인해 시선이 몸의 중심으로 모아진다. 여유 있는 실루엣과 짧고 가는 고름, 도련의 곡선이 어우러져 우아한 멋을 준다.

그림 18 자수 회장저고리

17세기 / 길이41cm, 화장73cm, 품44cm, 진동25cm

경기도 파주에서 출토된 해평 윤씨(1660~1701)의 자수 저고리이다. 출토 유물이어서 변색으로 인해 원래의 색상은 알기 어렵다. 조선시대에는 어린이 옷이나 생활용품이 아닌 성인의 저고리에 자수를 사용한 것은 흔례복인 활옷을 제외하고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이 유물은 실제로 성인 여성복식에 자수가 사용된 예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이다. 겹마기와 끝동 부분에 매화나무, 새, 벌과 나비 등의 곤충과 보문 등의 수를 놓아 만든 회장저고리이다.

길이가 짧아지고 도련이 직선화된 간소한 실루엣에 결마기와 끝동에만 지수를 놓아 직금저고리와는 또 다른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여성미가 돋보인다.

그림 19 연두색/옥색 삼회장저고리

19세기 / 연두색 별문사 / 길이 15.7cm, 품 31cm, 화장 68.5cm

옥색 자미사 / 길이 16.3cm, 품 32cm, 화장 59cm

조선 말기 당코 깃 삼회장저고리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저고리의 길이가 매우 짧고 진동도 좁으며, 소매 배래는 곡선적인 분위기가 약간 보인다. 결마기는 수구 방향을 향해 펼쳐져 있어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몸에 꼭 맞는 실루엣과 저고리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고름이 대비되어 산뜻하다. 도련의 곡선이 두드러지며 다홍색으로 만든 안고름이 시선을 모으는 악센트 역할을 한다.

그림 20 노란색 도류불수사 삼회장저고리

19세기 / 노란색 도류불수사 / 길이 15.5cm, 화장 56.5cm, 품 34cm

당코 깃에 직 배래에 곡선이 살짝 들어간 소매가 달린 짧은 저고리로 조선 말기에 유행했던 양식이다. 깃과 끝동이 좁으며, 결마기는 소매 쪽으로 뺀어나가 장식적인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 여자 저고리의 안고름은 늘 홍색계열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1 누비 삼회장저고리

19세기 / 송화색 / 길이 19cm, 화장 67cm, 품 38cm

19세기 / 옥색 / 길이 19.5cm, 화장 65cm, 품 35.5cm

두 점 모두 깃, 고름, 결마기, 끝동이 자주색으로 회장을 댄 동일한 형태의 회장저고리이나 소재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저고리 모두 오목누비를 하였는데, 솜을 넣지 않고 걸감과 안감을 누빈 후 누빔 선에 풀칠을 해주어 인두로 다려줌으로써 겉에서 볼 때 마치 솜을 얇게 넣어 누빈 것과 같은 입체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누비 옷 중에는 방한을 위해 솜을 두어 만든 경우도 있지만 멋을 내기 위해 솜을 두지 않거나 아주 얇게 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누비옷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내구력도 증가하고, 다른 겹옷과 달리 뜯어서 빨지 않고 통째로 세탁을 하기 때문에 제작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었다.

그림 22 필배래 삼회장저고리

20세기 초 / 길이 24.1cm, 화장 67.2cm, 품 48.2cm

팔배래 저고리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양식의 옷이다. 소매 배래에 때가 타지 않도록 천을 덧대었는데 흔하지 않은 유형이다. 이 유물은 녹색 길에 자색으로 삼회장을 달고, 연분홍 감사를 배래에 덧달았다. 깎은 솔기로 지은 당코깃 저고리이며, 운현궁에서 제작한 것이다.

그림 23 1930년대 고름 달린 적삼

1930년대 / 길이 32cm, 화장 65.5cm

옥색 광사(廣紗)로 만든 적삼이다. 홉으로 만들어진 저고리를 적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적삼이 매듭단추로 여미도록 만든 것과 달리 이 유물은 고름을 달아 만들었다. 적삼은 솔기를 가늘게 접어 세 번 박는 곱솔로 바느질하는 것이 특징이다. 1930년대는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졌고, 깃과 배래, 도련 등은 곡선이 강조되었으며, 고름은 이전보다 길고 넓어졌다. 소재와 색상이 어우러져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그림 24 1930년대 저고리

1930년대 / 길이 33cm, 화장 71cm

저고리의 길이와 형태에서 1930년대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소재 진주사로 만들고 미색 숙고사 안감을 대어 진주사의 사이사이로 안감의 색이 은은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제 감으로 동정을 만들어 달았으며, 자주색의 문사(紋紗) 고름을 달아 변화를 주었다. 대부분 반회장은 끝동과 고름을 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유물과 같이 고름만 자주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림 25 반회장 솜저고리

1940년대 / 길이 33cm, 화장 59.5cm

깃과 고름에만 회장을 댄 반회장저고리이며, 1930~40년대 저고리의 형태가 잘 나타나 있다. 연녹색 길에 자주색 고름과 남색 끝동을 단 명주 저고리로 솜을 두어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솜저고리는 따뜻할 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만들어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멋을 위해 얇게 솜을 두어 입기도 하였다. 끝동은 아들이 있는 부인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연녹색과 다홍, 남의 색상의 대비로 인해 밝고 신뜻한 느낌을 주는 옷이다.

그림 26 갖저고리

20세기 / 길이38cm, 화장74cm, 품52cm

평양지방의 갖저고리이다. 일반적으로 갖저고리는 이 유물보다 더 크고 길며

이 유물과 같이 조금 짧은 것은 한림저고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옷은 겉감을 소색 화문단으로 하고 안에는 양털을 대었다. 특별한 장식은 없지만 털을 댄 것만으로도 중후하고 포근한 느낌이 난다. 북한의 겹저고리의 특징은 양쪽 소매 앞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혼술’ 을 둔 것이다. 혼술은 소매 중간에 접어 넣은 솔기를 가리키는 말이며, 특히 평안도에서 유행하였다. 이는 배래의 가장자리가 해지거나 세탁 시 옷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지을 때 솔기를 조금씩 내어 쓰기 위함이라 한다. 실용적인 목적에서 댄 것이지만 조형적으로도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효과를 준다.

(3) 적삼

그림 27 모시속적삼

1910~20년대 / 소색 / 길이 15.7cm, 화장 60.5cm, 품 34cm

1910~20년대 / 꽃분홍색 / 길이 16.8cm, 화장 61cm, 품 36cm

속적삼은 저고리보다 치수를 약간 작게 만들어 밖으로 옷자락이 빠지지 않게 만들었다. 이 유물은 길이가 매우 짧고 당코 깃을 단 속적삼이다. 모시 소재에서는 시원함이, 장식을 배제한 매우 짧고 좁은 실루엣에서는 간결함이 묻어 난다. 분홍 속적삼은 젊은 여자들이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혼례 날 새색시는 계절에 관계없이 분홍 모시 속적삼을 입었다. 시원한 여름용 소재인 모시를 입어 답답한 시집살이를 잘 견디고 ‘속 시원 하게 살라’ 는 염원이 담긴 것이었다.

그림 28 향라 적삼

1940~1950년대 / 길이 33.5cm, 화장 70cm

향라를 곱솔로 바느질하여 홀으로 지은 여름용 적삼이다. 흰색 향라로 만든 동정을 달아 깔끔하게 보인다. 어깨와 겨드랑이에 바대를 대어 보강해 주었고, 제 감으로 만든 안고름을 달았다. 1940년대의 저고리는 1930년대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지고 배래가 곡선화 된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29 백색 향라 적삼

1930년대 / 길이 36cm, 화장 69cm

흰 향라를 곱솔로 바느질하여 홀으로 지은 여름용 적삼이다. 우리민족이 가장 애용한 흰 옷은 소박함 속에서 정갈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제 감으로 만든 동정을 달고 어깨에 바대를 대었다. 옷고름 대신 꽃모양의 단추를 달아 여미도록 하였다.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개량운동

을 통해 옷고름 대신 단추 혹은 브로치를 다는 풍속이 20세가 전반과 중반에 유행하였다.

그림 30 무명 적삼

1960년대 / 길이 28cm, 화장 69cm

겉은 소색 무명으로 하고, 안과 동정은 흰색 옥양목으로 한 춘추용 겹저고리이다. 1960년대의 특징인 배래가 넓으면서 극도로 곡선화 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고름 대신 매듭단추를 달아 간소한 느낌이다.

그림 31 삼베 적삼

1950~1960년대 / 길이 32cm, 화장 69.5cm

삼베에 흰색 모시로 동정을 달아 산뜻한 느낌을 주는 여름용 적삼이다. 넓은 소매와 곡선적인 소매배래, 저고리 길이, 단추 등에서 1950~1960년대의 특징이 잘 드러나며, 단추 고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브로치를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에는 고름 대신 브로치를 다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

(4) 배자와 마고자

그림 32 배자

18세기 / 길이 27.5cm, 품 24cm, 진동 15cm

이 유물은 파평 윤씨(1735~1754)의 묘에서 출토된 숨 배자로 19세기 말의 배자와는 다른 양식인 18세기 여자 배자의 한 예를 보여준다. 앞은 매듭단추로 여미도록 되어 있으며 양옆은 모두 트여 겨드랑이 아래의 넓은 띠로 고정시켰다. 방령의 깃과 직사각형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어우러져 개성적이면서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33 털배자

19세기말~20세기 초 / 길이 45cm, 품 55cm

평안도를 비롯한 북한에서 착용했던 털배자이다. 겉은 청록색 양단이고 안에는 토끼털을 대었다. 배자는 여성들의 일상복으로 방한을 위해 저고리 위에 덧입기도 하지만 평양에서는 신부가 초례를 마치고 털배자를 입고 잔치에 참여할 만큼 배자는 일상복으로는 물론 예복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 이남지방에서는 노인이나 어린이가 아닌 여자들은 배자 차림을 꺼리는 편이었다. 배자는 보통 안에 토끼털을 대지만 고급품은 양털을 대었으며 가장 자리에는 수달피 털과 같이 뽀뽀한 털을 두른다. 털을 두르기 전 가장자리에

덴 검정색 선은 정돈된 느낌을 주며 배자의 실루엣과 털이 어우러져 우아한 멋이 나온다.

그림 34 겹배자

19세기말~20세기 초 / 길이 22.5cm, 품 41.6cm

평양 지방의 짧은 여성이 입었던 배자이다. 배자는 방한용으로 사용되지만 멋을 위해 착용되기도 하였다. 이 배자는 자색의 겹감과 남색의 안감이 대비되어 강렬한 느낌을 주며 가장자리에 검정색의 선을 둘러 시선을 정돈시킨다. 배자 중에서도 특히 곡선미가 돋보이는 유형으로 별다른 장식 없이도 세련된 멋이 난다.

그림 35 마고자

20세기 초 / 길이 23cm, 화장 66cm, 품 42cm

겹감은 회색바탕에 꽃과 나비 무늬가 있는 양단, 안감은 흰색 주(紬)로 만든 겹마고자이다. 유물의 형태로 보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유물로 보인다. 길이가 짧아 옆선이 1cm도 안되며, 배자의 앞모양과 같은 맞깃 형태의 깃과 동정이 있다. 배래와 도련이 완만한 곡선이며 깃, 싹, 도련, 부리에는 검정색 공단으로 선이 둘러져 있어 간결한 느낌이 난다.

그림 36 배자와 마고자

19세기말 / 배자 / 길이 21cm, 품 42cm

마고자 / 길이 22cm, 화장 69cm, 품 43cm

소색의 생초 깨끼 마고자와 배자가 한 벌을 이루고 있는 유물이다. 두 옷 모두 가늘게 솔기를 깎아 바느질하는 기법인 곱솔로 만든 깨끼옷이다. 깃과 도련 부리에 두른 검은 색의 가는 선은 도련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얇은 천이 겹쳐지며 나타나는 물결무늬의 모아레(Moire)는 우리 옷의 특징 중 하나이다. 정교하고 날아갈 듯한 느낌의 옷으로서 마고자가 방한을 위한 옷만이 아니라 멋을 위해 착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그림 37 긴 마고자

20세기 초중반 / 길이 42.5cm, 화장 69.5cm, 품 52cm

겹감은 다갈색(茶褐色)의 양단, 안감은 옥색의 주로 만든 여자 마고자이다. 서울 이남지방에서는 여자들이 마고자를 입지 않았지만 개성지방을 비롯한 이북 지방에서는 여자도 마고자를 즐겨 입었다. 이 유물은 길이로 보아 1930년대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마고자의 길이가 길어져 옆선이 16.5cm에 이른다. 싹을 달지 않아 앞 중심부분이 벌어져 있다. 배래와 도련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소매 나비가 넓어져 좀 더 부드럽고 넉넉한 느낌을 준다.

(5) 속곳

그림 38 누비바지

임진왜란 전후 추정 / 길이 80cm, 나비 50cm, 허리 103cm

이 유물은 제주 고씨 배위(配位) 단양 우씨의 묘에서 출토된 누비바지이다. 양쪽 가랑이를 별도로 만들어 한 허리에 단 것으로 밑이 벌어지게 만든 것이다. 한쪽 가랑이에는 삼각형의 작은 무를 달고 다른 한쪽에는 큰 밑바대를 달았다. 입으면 속이 보이지 않도록 밑바대 부분이 겹쳐져 덮이게 되어 있다. 허리말기에는 어깨끈이 달려 있으며, 한쪽 옆선은 트여 있다. 삼각형의 무, 어깨끈 등 기능을 위해 발달한 요소들이 현대적인 디자인 활용에 많은 영감을 준다.

그림 39 솜 단속곳

17세기 / 길이 81cm, 나비 72cm, 허리 96cm

이 유물은 벽진 이씨 배위(配位) 문화 유씨(1615~1685)의 단속곳이다. 0.7cm 정도로 두껍게 솜을 넣었다. 바지 부리에서 24cm위에 5.5cm 나비로 옷감만 홉질로 접어 내렸는데, 이는 치마를 더욱 부풀리는 효과가 있었으며 조형적으로도 더 멋스럽다.

그림 40 단속곳

20세기 초 / 길이 95.5cm, 허리 88cm, 허리나비 85cm

연분홍색 생고사 홉겹으로 지은 단속곳이다. 단속곳은 다리속곳, 속속곳,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입는 옷으로 일상복에서는 치마 바로 아래에 오는 옷이다. 바지부리가 매우 넓은 대신 바지 밑 부분은 막힌 것이 특징이다. 두 개의 넓은 가랑이가 만나게 되는 바지 밑 부분이 힘을 받아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작은 삼각 무를 달았다. 허리부분에서 트임 있는 곳 위 아래와 앞뒤 중심에 진분홍 박쥐장식을 달았다. 박쥐장식은 힘을 받아도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이 있지만, 담색(淡色)의 단속곳에 붉은 색의 작은 장식은 시선을 집중시키고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도 한다.

그림 41 개성지방 누비바지

19세기 / 길이 112cm, 나비 56cm, 허리 93cm, 허리말기 나비 15cm
옥양목에 솜을 넣어 손바느질로 정교히 누빈 개성지방의 누비바지이다. 바지는 바지부리가 좁은 대신 밑이 앞뒤로 트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누비의 간격을 보면, 허리와 바지 윗부분, 바지 아래 부분의 굽기를 달리 하여 누볐다. 이는 치마를 걷어 올릴 때 노출될 수 있는 부분과 안에 감춰져 있을 부분을 구분하여 실용적으로 만든 것인데 조형적인 효과도 탁월하다. 오른쪽 허리의 아귀에 둘러진 청색 선과 진분홍색의 보조 끈 2개가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여 산뜻한 느낌을 준다.

그림 42 누비바지

20세기 초 / 길이 100cm, 허리둘레 90cm, 허리나비 11.5cm
연한 회색 명주에 면을 대어 누빈 바지이다. 바지의 위와 아래 각각 간격을 달리 하여 누볐다. 재봉틀로 누빈 기계누비이지만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소재의 색감과 다양한 누비 간격, 입체적인 누비 기법 등을 통해 감각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43 살창 고쟁이

20세기 초 / 길이 84cm, 허리둘레 70.4cm
남부지방에서 많이 입던 삼베로 지은 살창고쟁이이다. 여름을 시원하게 나기 위해 허리 아랫부분을 올려내어 살창과 같이 만든 것이다. 올려낸 부분이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작은 천을 대어 힘을 받도록 만들었다. 기능적인 용도로 구멍을 낸 것인데, 조형적인 면으로도 손색이 없이 아름답다.

그림 44 뒤트임 바지

20세기 초 / 길이 95cm, 허리둘레 83cm, 허리말기 나비 14cm,
각각의 가랑이에 무를 단 후 허리에 연결하되 뒤로 여며 입게 만든 바지이다. 우리나라 여자들의 일반적인 속곳들과 달리 바지 밑에 무가 달려있으면서도 조선시대 여자들이 승마 시 착용하던 바지인 말군(襪裙)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6) 치마

그림 45 의례용 치마

16세기 추정 / 길이 95cm(앞)·129cm(뒤), 허리 98cm, 나비 550cm
뒷자락이 길게 끌리도록 만들어진 예복용 치마이다. 긴 길이의 치마로 완성한

후 앞부분 상단을 접어 고정하여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하였다. 이러한 구성법의 치마는 16세기경의 출토 유물로만 전해지고 있다. 치마의 겹주름은 앞 중심과 양옆의 주름 나비에 차이를 두어 볼륨감을 살렸으며 허리와 도련은 모두 석 땀으로 정교하게 감침질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이 치마를 입으면 뒷자락이 길게 끌려 마치 서양의 버슬(bustle) 스타일의 드레스를 연상케 한다.

그림 46 다이어트형 홀치마

16세기 / 길이 119cm, 전체 폭 549cm, 허리둘레 99.5cm

이러한 양식의 예복용 치마는 16세기 출토유물로만 전해진다. 착용자의 앞에 위치하게 될 중앙의 치마폭은 치마길이에 맞추었지만, 착용자의 뒤에 위치하게 될 좌우 양옆에 오는 치마폭은 땅에 충분히 끌릴 만큼 치마길이보다 길게 만들었다. 길이의 차이가 나는 치마폭은 서양의 다이어트(dart)처럼 삼각으로 접어 길이를 맞추었다. 이 치마를 입으면 뒤가 길게 끌리는 서양의 버슬스타일과 같은 실루엣을 연출하게 된다. 치마 도련에는 선단을 돌려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그림 47 스란치마

16세기 / 길이 127cm, 치마폭 558cm

출토복식인 이 유물은 치마 무릎부분에 포도 동자문이 두 줄로 넓게 직금(織金)되고 아랫단에는 보문(寶文)이 좁게 직금된 스란치마이다. 조선중기의 출토복식을 보면 당시의 스란치마는 이 유물과 같이 직금직물을 사용하여 무릎부분은 금선단(金線緞)이 넓은 반면 아랫단은 매우 좁게 직금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금사는 소실되고 문양만이 남아 있다. 조선 말기 스란치마의 문양과는 다른 독특한 조형성을 보인다.

그림 48 남 스란치마

20세기 초 / 4폭 반, 1폭나비 78cm

스란단을 한 층 댄 것을 스란치마라 하고, 두 층 댄 것을 대란치마라 한다. 스란치마는 소례복에, 대란치마는 대례복에 착용했다. 스란단의 문양은 신분에 따라 황후는 용문, 왕비는 봉황문, 빈과 공주 및 응주는 화문을 직금 또는 부금하였다. 스란치마나 대란치마는 일반적으로 평상복의 치마보다 한 폭을 더하여 치마 전체의 폭이 넓으며 길이도 30cm정도가 땅에 끌릴 만큼 길다. 이 유물은 모본단 겹치마로 봉황과 구름, 화염을 부금(附金)하였다. 남색 스란치마는 홍색 대란치마 안에 착용하는데, 홍색 대란치마를 조금 올려 입어 안

에 착용한 남색치마 밑단의 스란단이 드러나도록 했다. 이 경우 남색과 홍색의 색감, 그리고 스란단에 부금된 문양이 조화를 이루어 한층 품위를 더했다.

그림 49 홍 대란치마

20세기 초 / 5폭, 1폭 나비 69.4cm

홍색 속갑사로 지은 대란치마이다. 스란단의 나비는 아랫단보다 윗 단이 더 넓으며 각기 화염문을 사이에 두고 있는 봉황 문양을 부금(附金)하였다.

그림 50 전행웃치마

19세기 말~20세기 초/左·右 길이 144.5cm, 나비 30cm

中 길이 129.5cm, 나비 29.5cm

웃치마는 적의와 원삼 같은 궁중예복을 입을 때 대란치마 위에 받쳐 입는 장식용 치마이다. 허리 하나에 세 폭으로 나누어진 자락이 달려 있는데 한 폭에 0.5cm 나비로 허리말기부터 밑단 끝까지 31개씩의 잔주름이 잡혀 있다. 길이는 중간 자락이 조금 짧다. 입을 때 중앙의 짧은 자락이 안에 입는 대란치마의 금직단 바로 위에 올라오도록 앞을 접어서 입고 좌우의 긴 자락은 양옆 허리에서 아래로 길게 드리우게 하여 허리끈을 뒤로 돌려 앞으로 맨다. 세밀하게 잡은 잔주름과 직금이 어우러져 예복에 기품을 더한다.

그림 51 자적 웃치마

19세기 말 / 길이 106cm, 허리 78cm, 폭 126cm

이 유물은 자적 웃치마로 알려져 있으나 명칭은 정확하지 않다. 홀 도류불수사로 만들어진 치마의 안쪽 가장자리에는 5cm 나비의 남색 선을 둘러 색상의 대비와 함께 정돈된 느낌을 살렸다. 치마 중앙에는 직금스란이 부착되어 있다. 직금스란의 형태가 독특하다. 예복의 앞자락이 벌어졌을 때 드러나는 부분에만 직금부분을 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 선단치마

1940년대 / 길이 116cm

원삼 밑에 입는 예복용 덧치마이다. 안쪽에는 남색 명주로 5cm 나비의 선을 둘러졌으며 치마의 폭은 일반치마에 비하여 좁다. 간결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자의 선단치마는 홀치마이면서 치마가 바람결에 날렸을 때 반대색의 선단이 살짝 엿보이는 매력이 있다.

그림 53 단 접은 치마

16세기 말 / 길이 107cm, 나비 98cm, 허리둘레 98cm

진주 류씨 배위(配位) 의인 박씨의 치마이다. 매우 얇은 솜치마로 예복 치마 일 것으로 추정된다. 치마 단에서 21cm 올라온 곳에서 11.5cm를 접어 마치 치마 2벌을 겹쳐 입은 듯한 우아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치마의 형태는 16세기를 전후해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54 누비치마

17세기 / 길이 92.5cm, 나비 309.5cm, 허리둘레 82cm

동래 정씨 배위(配位) 여흥 민씨의 누비치마이다. 0.5cm 정도 두께의 솜을 두었고 1.2cm 간격으로 곱게 누빈 치마이다. 치마폭은 10폭을 이었으며 주름의 방향은 현대 치마와 동일하다. 특별한 장식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곱게 누빈 누비에서 정성과 섬세함, 그리고 우아한 멋이 느껴진다.

그림 55 소색 모시치마

19세기말~20세기 초 / 길이 93cm, 허리둘레 93cm

여름철에 주로 착용한 것으로, 일반적인 모시옷처럼 홀으로 제작되었다. 치마의 옆단과 아랫단은 가늘게 안으로 접어 박았다. 얇게 비치는 소재로 인해 겹겹이 입은 속옷의 아름다움이 은은히 드러났을 것이다. 깔끔하면서 단정한 느낌을 준다.

그림 56 옥색 모시치마

19세기말~20세기 초 / 길이 99.5cm, 허리둘레 76cm

주름의 나비를 3cm 간격으로 잡은 모시 홀치마로 단은 풀로 붙였다. 행주치마는 대부분 황색을 사용한다. 옥색이지만 그 크기로 보아 쓰개치마 혹은 행주치마용으로 만든 것 같다. 옥색의 색감에서 은은함과 청량감이 배어나오며 전반적으로 정갈한 느낌을 준다.

그림 57 다홍치마

19세기 말~20세기 초 / 길이 115cm, 치마폭 232.5cm, 허리둘레 99.8cm

붉은색 치마는 처녀나 첫 아이를 낳기 전의 새댁 등 젊은 여자들이 즐겨 입었다. 안과 겉 모두 갑사를 사용했는데, 안을 흰색으로 하여 겉감의 무늬가 뚜렷이 드러나 보이게 하는 지혜가 엿보인다. 우리나라 옷의 대부분이 보색계열 혹은 흰색의 안감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는 이 무늬를 더 잘 나타내는 이점이 있다.

그림 58 남색 홀치마

19세기 말~20세기 초 / 길이 114cm, 치마폭 210cm, 허리둘레 98.4cm
남색 치마는 비교적 나이와 계절에 관계없이 가장 즐겨 입었던 치마이지만, 명절이나 경사에는 특히 많이 입었다. 예복용으로는 겹치마를 입지만, 평소에는 홀치마를 즐겨 입었다.

그림 59 무지기치마

19세기 말~20세기 초 / 길이 69.5cm, 허리둘레 94cm, 허리나비 7.5cm
무지기치마는 조선후기 상류층 부녀자들이 겹치마를 부풀리기 위하여 속에 입었던 속치마이다. 길이를 다르게 한 모시 12폭 치마를 3합, 5합, 7합 등으로 겹쳐 한 허리에 달았다. 따라서 각 층의 치마 길이가 달라 층층으로 보이며 각 층의 끝부분만 은은하게 염색하였다. 각 층의 밑단 부분에 홍색을 물들여 마치 연꽃과 같다고 하여 ‘연봉치마’ 라고도 하였다. 무지기라는 명칭에서 무지개 색깔이 연상되어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하여 입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나이드은 사람은 분홍 단색으로 하고 젊은 사람은 각 층마다 다른 색을 염색하였다. 여러 층의 주름이 겹쳐져 만드는 실루엣과 그라데이션(gradation) 효과를 주는 색상이 어우러져 현대적인 디자인에도 많은 영감을 준다.

그림 60 대습치마

19세기 말 / 길이 95cm, 허리둘레 91cm, 치마폭 265cm
대습치마는 예복치마 속에 입는 것으로 궁중 혹은 반가 여인들이 대례복이나 소례복을 갖추어 입을 때 무지기 치마 위에 받쳐 입었다. 풀 먹인 모시를 이어 치마를 만들고 4cm 나비로 창호지 백비 단을 만들어 모시로 싸서 밑단에 붙였다. 백비 단은 창호지에 풀을 여러 겹 발라 뽀뽀하게 만들어 붙인 것이다. 오늘날 웨딩드레스 페티코트(petticoat) 아랫단의 와이어(wire)의 역할을 하였다. 길이가 긴 겹치마를 입었을 때 치마 하단이 퍼지게 하여 아름답고 우아한 치마의 실루엣이 완성된다.

그림 61 속치마

19세기 말~20세기 초 / 길이 96cm, 허리둘레 92cm, 치마폭 190cm
항라(亢羅) 네 폭을 이어 만든 통치마로 뒤트임이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바지 형태의 속곳을 겹겹이 입었는데, 개화기 이후 통치마를 입게 되면서 속치마가 등장하였다. 이후 대부분 조끼허리가 달려있는데 이 유물은 어깨끈이 없이 전통적인 허리말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양식이다. 통치마가 사용되기 시작한 개화기 초기의 유물로 추정되며, 손바느질과 재봉틀 바느

질을 겸하였다.

그림 62 조끼허리 속치마

1920년대 / 치마길이 99cm, 허리길이 27.5cm

어깨허리가 달린 통치마 형태로 제작된 속치마로 1920년대 이후 여성용 고쟁이와 단속곳 대신에 입었다. 이 유물은 소색 자미사로 만들었으며, 밑단의 시접은 풀로 붙여 처리하였다. 어깨허리는 광목으로 만들었으며, 앞트임에 단추 2개를 달아 여밀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들이 속곳을 벗고 속치마를 입게 되면서부터 한복치마는 이전 보다 치마의 폭이 줄고 실루엣도 덜 부푼 모양이 되었다.

그림 63 앞치마

20세기 초 / 길이 113cm

흰색 모시 3폭을 잇고 주름은 성글게 잡아 만든 앞치마이다. 치마 위에 덧입어 치마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풍성한 옷차림을 활동하기 간편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반가에서는 치마를 다 가릴 정도의 길이로 만들었다. 앞치마는 흰색 면 혹은 마직물로 치마를 거의 다 가리다시피 하여 노동복과 일상복에서 한국 여성의 정결함이 나타난다.

(7) 예복

그림 64 적의

20세기 초 / 길이 155cm, 화장 101cm, 품 53cm

이 적의는 순종 비였던 윤 황후가 착용하던 것이라 한다. 심청색 바탕에 12줄의 적문(翟紋)과 사이사이에 이화(梨花)가 함께 직성(織成)되어 있는 홉옷이다. 오조룡보를 달았으며 두 쌍 중에 한 개를 제외하고 같은 방향으로 수를 놓아 부착하여 양어깨 부분의 방향이 같은 모양으로 마주하고 있다. 깃과 도련, 수구에는 홍색의 단에 용과 구름을 직금한 운룡문(雲龍文)이 둘러져 있다. 깊은 색감이 우러나는 심청색(深靑色) 바탕에 금사로 직조된 홍색 선, 그리고 섬세한 직조 문양으로 왕실이 아니면 불가능한 최고의 품격과 함께 왕실 대례복의 위엄과 화려함이 느껴진다.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폐슬과 옥대, 후두와 패옥, 그리고 하피(霞帔)를 두르고 청색 버전인 청말(靑襪)과 신인 청석(靑鴛)을 신고 머리는 대수(大首)로 꾸미고 옥규(玉圭)를 들면 대한제국의 황후 대례복이 완성된다.

그림 65 황원삼

20세기 초(1919년 추정) / 길이 130cm(앞)·145cm(뒤), 화장 136cm, 품 45cm

이 황원삼은 1897~1926년 사이 착용된 것으로, 순종 비였던 윤 황후가 하사한 유물 가운데 한 점이다. 동궁비의 원삼과 색상과 문양은 다르나 조형적인 구성은 동일하다. 황색 비단에 직금으로 장식된 매우 화려한 원삼으로 황후의 원삼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물이다. 소매 끝에는 홍색과 청색 화문 직금단의 왕실 전용의 두 줄 색동이 달려 있고, 이어서 흰색 직금(織金) 한삼이 홀으로 달려 있다. 도련의 남색 선은 안감에만 대어 주어 겹감 안쪽 도련에도 둘러져 있는 동궁비의 원삼과 차이를 보인다. 옆선의 트임 부분에는 홍색의 박쥐매듭을 달았다. 박쥐 장식은 조선시대 복식과 보자기 등의 생활용품에서 힘을 받아 터지기 쉬운 위치에 달아 보강의 역할을 하는 한편 악센트로서의 미적 효과도 있었던 장식의 한 방법이다. 원삼의 양어깨와 앞, 뒤에 금사로 자수한 오조룡보를 달았다. 황색 바탕에 화려한 문양이 더해져 왕실 예복의 기품이 느껴진다.

그림 66 홍원삼

20세기 초(1906년 추정) / 길이 130cm(앞)·145cm(뒤), 화장 135cm, 품 44cm

다홍색 바탕 봉황문단에 어깨와 소매의 상단과 하단, 앞길과 뒷길의 중앙과 하단에 동일한 문양이 직금된 홍원삼이다. 소매에는 미색과 남색의 직금단으로 색동과 백 한삼을 달았다. 안감은 연한 황색이며, 색동의 안감은 홍색의 사로 대었다. 끝부분에는 남색의 선을 둘러 주어서 마치 겹감의 색동과 유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옆선의 트임 부분에는 박쥐 장식을 달고 양어깨와 앞뒤의 중심에 금사로 수놓은 오조룡보를 달았다. 황원삼과 형태는 유사하나 색동과 안감, 대(帶)의 색상과 선단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왕실 예복의 화려함과 조형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림 67 자적 원삼

19세기 말~20세기 초 / 길이 133cm(앞)·164cm(뒤), 화장 132cm, 품 46cm

고종의 후궁인 광화당 이 씨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자적 원삼이다. 자적색 길에 소매 끝에 청색과 미색의 색동이 달려 있고 연이어 백색 한삼이 달린 형태이다. 기본적인 구성은 황원삼이나 홍원삼과 동일하나 두 줄의 직금색동을 제외하면 금직이나 금박의 장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궁중에서 사용한 원

삼은 민간용보다 옷 길이와 소매 길이가 길고 색동의 색을 제한하며, 깃 모양과 단추처리, 옷의 구성과 바느질에서 격식을 갖추고 있어서, 아기자기한 맛이나 화려함은 덜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품 있고 세련된 구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68 수복문 녹원삼

19세기 말 / 길이 108cm(앞)·139cm(뒤), 화장 111cm, 품 43.5cm

겉감을 초록색 도류불수사로 하고, 전면에 수복자(壽福字)를 엮갈아 가며 일정한 간격으로 금박한 녹원삼이다. 안감은 홍색으로 하고 남색으로 가장자리 선을 둘렀다. 소매 끝에는 홍색과 황색의 색동과 백색의 한삼을 달았다. 이 녹원삼에는 봉황 흉배가 달렸는데 흥미로운 점은 흉배를 고정시키기 위해 흉배 안쪽과 안길에 끈을 2개 달아서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흔치 않다. 수복자 금박이 점잖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림 69 덕온공주 원삼

19세기 전반 / 길이 113cm(앞)·164cm(뒤), 화장 164cm, 품 44.5cm

이 원삼은 덕온공주가 16세 되던 1837년에 남영위 윤의선에게 하가(下嫁)할 때 대례복으로 착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녹색 화접문사의 겉감 전체에 ‘수복(壽福)’의 두 글자가 전자체(篆字體)로 부금(負金)되어 있다. 소매 끝에 홍색과 황색의 색동과 한삼이 달려 있다. 길 안쪽 가장자리 부분에는 청색 선이 둘러져 있고 일부에는 빨간 실로 시침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홍색 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삼의 도련이 날렵한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당시의 특징으로 예리하면서도 여성적인 느낌이 난다.

그림 70 민간 원삼

19세기 말 / 길이 110cm, 화장 112cm, 품 48cm

겉은 두록색, 안은 분홍색 갑사를 사용한 민간 원삼이다. 소매에는 홍, 남, 황, 분홍, 녹, 홍, 소색의 일곱 색동과 한삼을 달았다. 깃은 비교적 각이 진 모양이며 원삼의 앞뒤 길이의 차가 적다. 궁중 원삼에 비해 형태도 간결하고 금박이나 직금의 장식도 없다. 민간 원삼은 왕실 예복에 비해 재료의 질은 떨어지지만 구성이 자유롭고 다양한 색의 색동을 넓게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다 발랄하며, 즐거운 분위기가 나며 크기와 형태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71 개성 원삼

20세기 초 / 길이 121cm, 화장 81cm, 품 65cm

개성지방에서 착용된 원삼으로, 수구와 앞뒤 도련, 옆트임 등에 홍색선이 둘러져 있으며 한삼이 달려있지 않다. 녹색 모란문단을 사용하여 만든 홀 원삼이며, 소매에는 남, 홍, 황, 자주, 소색의 오색 색동이 있다. 안감에 선을 댄 다른 지방의 원삼과 달리 겉에서 드러나도록 홍색 선을 도련에 두른 것과, 소매 배래의 모서리를 둥글린 것이 일반 원삼과 달라 개성지방만의 독특한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그림 72 흑원삼

19세기 초 / 길이 112cm, 화장 116cm, 품 47cm

앞뒤 길의 길이가 동일하며 검정에 가까운 짙은 자색 운문사로 만든 홀 원삼이다. 색동은 홍색과 황색으로 하고 백색의 한삼이 달려있다. 원삼의 형태로 보아 궁중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짙은 바탕색에 일체의 장식을 자제하여 절제된 느낌을 준다.

그림 73 복온공주 활옷

19세기 / 길이 130cm, 화장 92.5cm

순조(純祖)의 2녀 복온공주(福溫公主, 1818 ~ 1832)의 활옷이다. 도류불수단과 자수가 놓인 공단을 바탕천으로 이용하였다. 앞길 중앙과 소매 하단에는 노의(露衣)의 장식문양인 원앙 무늬가 부금(附金)되어 있다. 길의 외곽선은 완만한 곡선이며 버선코처럼 모서리 끝을 살짝 나오게 마무리하였다. 맞깃형식으로 목판깃의 아래 부분은 배자 깃으로 깃 선만 파여져 있어 문양과 구성방법에 있어 일반 활옷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삼과 달리 색동이 세 줄이 들어가 있고 안감에 선을 두르지 않았다. 앞길의 위, 아래와 뒷면 전체를 짙은 자수와 원형의 금박이 어우러져 다채롭고 화려한 멋을 낸다. 이 활옷의 자수문양은 꽃과 칠보(七寶) 무늬가 금사 징금수 기법으로 전체적으로 줄을 이루어 배치된 독특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74 민간 활옷

19세기 / 길이 121cm, 화장 90cm, 품 45cm

활옷의 겉감으로 홍색 전(氎)을 사용한 특이한 사례이다. 안감은 남색이며 삼색 색동을 달았다. 동정과 한삼 윗부분, 뒷고대 부분을 한지로 덧씌워 오염을 막도록 하였는데, 특히 뒷고대 부분은 꽃잎처럼 하여 장식성도 고려하였다. 앞길에는 봉황을 중심으로 물결, 괴석, 연꽃무늬를, 어깨에는 모란을, 뒷길에는 백로를 중심으로 연꽃, 모란, 봉황, 물결 무늬와 ‘백복지원(百福之源)’, ‘이성지합(二姓之合)’의 문자(文字) 무늬까지 자수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궁중용 활옷에 비하여 형태가 간소하지만 문양과 색상을 다양하여 우리 조상들의 염원과 자유로움이 묻어난다.

그림 75 몽두리

19세기 / 길이 111cm, 화장 65cm, 품 50cm

황삼(黃衫) 혹은 몽두리라고도 하며 무녀가 굿거리에 착용하였다. 맞깃 모양의 깃 주위에는 오색의 깃 물림이 되어 있고 붉은 색실로 석 팜 상침을 하여 조형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무의 아래 부분 트임에는 홍색 선단을 덧대었다. 뒷 중심에도 트임을 주어 활동에 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무속복식과 무용복식은 절제된 미를 보이는 일반 복식과 대조적으로 강한 색채배색과 장식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 76 여성 단령

16세기 전반 / 길이 111cm, 화장 73cm, 품 51cm

진주 류씨 합장묘에서 출토된 의인 박씨의 단령은 조선시대 중기의 대표적인 여성 예복이다. 여성의 단령(團領)은 동시대의 남자 단령과 비교하면 소매와 무, 옷고름, 대대(大帶) 등에서 몇 가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의인 박씨의 단령 역시 이와 같은 전형적인 조선 중기 여성 예복으로서의 단령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금 호표(虎豹)흉배가 부착된 문단 홀단령으로, 대부분의 여자 단령이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였던 것에 비해 앞 뒤 길이의 차이가 없다. 소매는 수구가 이중으로 접혀 들어갔고, 직선 배래에 통솔이며, 무는 이중 접은 무에 겨드랑이 아래부터 트임이 있다.

일상복식에서 볼 수 없는 격식과 위엄이 느껴지는 옷이다.

그림 77 누비장옷

17세기 전반 / 길이 124cm, 화장 81cm, 품 60cm

동래 정씨 정광경의 배위(配位) 여흥 민 씨의 장옷이다. 조선 전기에 여자들이 겹옷으로 착용하였던 장옷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 누비 장옷으로 초록색 소화문룡 길에 목판깃과 겨드랑이의 삼각 무는 자주색으로 하였다. 누비 간격은 2.5~2.85cm이고, 소매배래는 직선이다. 누비는 방한용이면서 직물의 내구력을 높이고 세탁 등 관리에 편한 것은 물론 자체로서 장식효과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누비는 곡선이나 문양을 사용하지 않고 직선만을 일정하게 사용하여 간결한 맛이 있다. 이 유물은 장옷 특유의 세련된 형태감과 소재의 느낌, 누비의 정교함이 잘 어우러져 있다.

(8) 쓰개

그림 78 너울

17세기 / 길이 70cm, 모정(帽頂) 지름 23cm

여흥 민씨(1586 ~ 1656)의 너울이다. 청색과 자주색이 도는 검은 빛의 라(羅)로 만들었는데 17세기 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조라(皂羅)’ 일 것으로 생각된다. 큰 장식은 없지만 너울드림이라 하여 매듭 장식을 늘이기도 하였다. 조선전기의 상류층 여성들은 외출할 때 말을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때 반가 부인들은 반드시 너울을 착용해야 했다. 너울을 착용하게 된 것은 유교사회의 내외법 때문이지만, 은폐된 여성의 모습은 신비감을 높이기도 하므로 고려시대에는 내외법이 아니라 멋으로 몽수(蒙首)를 하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조선 이전부터 쓰였던 쓰개이다. 조선시대의 너울은 내외법으로 인해 특히 상류층에게 착용이 강조되었다. 말을 타고 다닐 때 드리운 너울은 쉽게 근접할 수 없는 위엄과 함께 너울드림의 나부김으로 인한 여유와 멋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후기 여성이 말을 타고 외출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궁중 행차를 제외한 반가 여성들의 너울 착용도 차차 사라지고 장옷이나 쓰개치마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림 79 덕은공주 장옷

19세기 전반 / 길이 113cm, 화장 69cm, 품 41cm

덕은 공주의 유품인 장옷이다. 19세기 전반 왕실 이하 사대부가의 장옷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장옷은 조선 초기에는 겹옷으로 입었지만 용도의 변화가 생겨 조선 후기에는 내외용 쓰개로서 바뀌었다. 용도가 바뀐에 따라 조형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생긴 흥미로운 옷이다. 즉, 온 몸을 덮기 충분하도록 길 부분이 좁은 반면 안설피와 겹설피를 두 개씩 달고 양쪽의 무를 넓게 대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여유 있는 풍성한 실루엣을 보여준다. 장옷의 특징인 목판깃과 양 겨드랑이의 소형 삼각 무는 자적색이다. 고름은 자적과 분홍색의 넓고 긴 고름이 겹깃 쪽에 한 쌍이 있고, 안깃 쪽에는 분홍색 한 개, 안길에는 자색으로 한 개가 있어 모두 두 쌍이 달렸다. 고름의 장식적 효과가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그림 80 쓰개치마

19세기 말 ~ 20세기 초 / 길이 122.5cm / 허리둘레 89.9cm

쓰개치마는 양반 여성들의 내외용 쓰개로 사용되던 것이다. 흰색이나 옥색으로 만들며, 형태는 치마와 비슷하지만 치마보다 길이가 약 30cm 정도 짧고

폭도 좁다. 이마에서 내려쓰고 치마허리에 해당하는 양쪽 끝을 턱밑에서 손으로 잡아 고정했다. 이 쓰개치마는 개성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옥양목으로 만들었다.

그림 81 치네

19세기 말~20세기 초 / 길이 106cm, 밑단 둘레 198cm

치네는 천의라고도 하며, 내외용 쓰개 중 비교적 신분이 낮은 층에서 사용하던 방한을 겸한 쓰개이다. 겉은 분홍색 명주, 안은 연두색 명주로 솜을 두어 만들었다. 구조를 보면 치마의 윗부분에서 양쪽으로 나누어 두 개의 주름을 좌우로 잡아 허리와 연결했다. 허리의 양쪽 끝에는 긴 끈을 달아 그 끈을 머리 뒤로 돌려 묶는다. 허리 부분에 동정을 달아, 착용하면 동정이 이마 부분에 닿도록 되어 있다. 색은 다홍색이나 자주색 겉감에 녹색이나 남색 안감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서울에서는 아기를 업을 때 사용하는 끈 달린 포대기를 치네라고 부르는데, 쓰개용 치네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쓰개용 치네에는 머리 부분에 주름이 잡힌 점에서 차이가 있다.

(9) 기타

그림 82 화장저고리와 스란치마

16세기 후반 / 화장저고리 / 길이 55cm, 화장 72cm, 품 75cm,

스란치마 / 길이 127cm, 허리 92cm, 나비 560cm

목판깃과 직선적인 형태의 화장저고리에 스란치마를 한 벌로 한 16세기 후반의 치마저고리이다. 저고리는 허리를 덮을 정도로 길고, 치마는 상대적으로 짧아 허리 부분에서 둘러 입게 된다. 넓은 깃과 넉넉한 품의 저고리로 인해 품위 있고 점잖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그림 83 반화장저고리와 치마

19세기 / 반화장저고리 / 길이 21cm, 화장 72cm, 품 43cm

치마 / 길이 136cm, 허리 93cm, 폭 357.5cm

짧은 저고리에 긴 치마를 조합한 19세기의 대표적인 치마저고리이다. 치마의 길이가 일반 치마보다 길어 입었을 때 길게 끌렸을 것이므로 의례용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 후기의 여성 복식 실루엣은 상의는 짧고 좁게 입고 하의는 풍성하게 입는다 하여 '상박하후(上薄下厚)' 라고도 하였다. 상박하후의 실루엣은 조선 후기의 여성복식의 가장 특징적인 실루엣이며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형태가 한복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84 노란반회장 숨저고리와 분홍치마

1927년 / 저고리 / 길이 32cm, 화장 62cm, 품 41.5cm

치마 / 길이 97cm, 허리 95cm, 폭 270cm

1920년생 규수가 17세 되던 해에 손수 지은 혼수품이다. 노란 숨저고리에 분홍치마를 받쳐 한 벌로 만든 것인데 이와 같은 색상의 옷은 주로 혼인하지 않은 처녀나 갓 결혼한 새댁이 입었다. 남 끝동, 자주 고름에 연분홍 안고름을 달았고 숨을 얇게 두어 포근한 느낌을 준다. 치마는 삼팔주이며 소색 모시로 허리를 달았다. 저고리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고 치마가 짧아진 개화기의 한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저고리는 개화기에 저고리가 길어지면서부터 곡선미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으며, 옷고름의 장식성도 강조되어 조선시대에 비해 한결 넓고 길어지게 되었다.

그림 85 경재부인 이씨 초상화

경재 하연(1376~1453)의 부인 초상화로 알려져 있다.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그 위에 다시 포(袍)를 입었으며 어깨에는 표(褙)를 돌렸다. 저고리는 연한 황색 바탕에 저고리를 두 벌 겹쳐 입고 있으며 수구에는 흰색과 홍색이 보인다. 치마는 저고리 위에 입고 있으며 허리 위로는 두 개의 가는 끈이 있다. 미색 포에는 커다란 꽃무늬가 있고 허리띠는 착용하지 않았다. 삼국시대의 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초상화는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은 다음 그 위에 포를 입고 다시 표를 걸친 차림이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86 혜원의 미인도

18세기 여성복식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가장 선호했던 남색의 치마는 가는 치마 주름을 풍성하게 잡아 항아리와 같이 불룩한 실루엣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저고리의 깃이 목 가까이 바짝 올라가 있어 단정한 느낌을 주며, 꼭 끼는 진동과 소매배래는 연약하고 섬세한 여성미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소매 끝동도 치마와 마찬가지로 강렬하지 않은 남색 끝동을 달았다. 깊은 맛이 우러나는 김 자주 빛으로 깃과 결마기를 장식한 화장저고리 역시 조선시대에 가장 선호되었던 양식이다. 또한 밝고 선명한 빛깔의 안고름은 감추어진 듯 살짝 드러나는 여운이 있다. 장신구로는 삼천주 노리개가 매듭과 함께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림 87 혜원의 월하정인

자주색으로 끝동을 장식한 저고리에 푸른색 치마를 입은 여인의 모습이다. 걷어 올린 치마 아래로 속바지가 보이고 흰색 버선에 끝이 맵시 있게 솟은 윗혜를 신은 작은 발이 노출되어 은밀한 느낌이 든다. 여기에 단정하게 쓰개치마를 쓴 모습은 내외법으로 인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은밀히 드러나는 얼굴과 작고 고운 발 맵시 등 바깥 출입이 잦지 않은 조선시대 여성의 은밀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림 88 갈옷

20세기 / 갈적삼 / 길이 32cm, 화장 61cm, 품 95cm

갈굴중이 / 길이 81cm, 허리 94cm, 부리 84cm

갈옷이란 풋감을 짓이겨 낸 즙으로 염색을 한 제주도의 옷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갈옷은 통기성과 방수성이 매우 좋아 작업복으로 사용되었다. 바지는 조선시대 말기 이후의 단속곳과 같은 형태이다. 갈옷은 철저하게 실용을 위주로 한 복식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서민들의 노동복을 잘 보여준다.

그림 89 해녀복(물적삼, 물소중이)

20세기 / 물적삼 / 길이 32cm, 화장 70cm, 품 48cm

물소중이 / 길이 61cm

물적삼은 제주도 해녀복의 상의로, 잠수를 할 때 소중이 위에 입는다. 소매는 직선 배래이며 소매부리에는 고무줄을 넣어서 잠수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었고, 목둘레는 둥글게 파고 허리 밑단에 고무줄을 넣거나 주름을 앞뒤로 잡아 허리에 꼭 맞도록 한다. 천은 흰색 무명을 사용한다. 물소중이는 무명이나 삼베를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만들고 오른쪽 옆을 완전히 트고 몇 군데 고리를 만들어 형철 매듭단추를 단다. 또한 허리 쪽에서 끈으로 매도록 되어 있다.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기능적으로 만든 옷으로 일반 복식과는 다른 조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90 허리띠

20세기 초 / 길이 99.5cm, 나비 28.5cm

흰 옥양목에 솜을 누벼 만든 겨울용 허리띠이다. 일부지방에선 가슴싸개라고 부른다. 직사각형의 형태에 별다른 장식은 없지만 세밀하게 누벼진 누비의 조형성 자체만으로도 멋스러움이 느껴진다. 허리띠를 하는 이유는 짧은 저고리를 입을 때 가슴이나 겨드랑이로 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는 동시에 납작하게 조여 작고 날씬한 상체의 실루엣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림 91 왕비 보

황후나 왕비의 보는 황제나 왕의 보(補)가 외곽선이 파상(波狀)을 이룬 것과는 달리, 두 가닥으로 정원(正圓)이 되도록 윤곽을 두르고 오색사(五色絲)로 하단에 물결과 구름 등의 무늬를 배치하여 만드시 수놓았다. 이 유물은 영친왕비의 적의(翟衣)에 부착되어 있는 보로 용문을 수놓은 오조룡의 원형 보이다. 곤룡포의 보가 가는 금사 한 가지만을 사용하여 수놓은 데 비해, 적의의 보는 굵은 금사와 오색사로 수놓아 화려함을 더 하였다.

그림 92 봉황흉배

가로 22cm, 세로 23cm

이 유물은 유록색 운문단에 금사와 오색 견사로 봉황을 수놓은 흉배이다. 마주 보는 봉황 사이로 여의주(如意珠)를 두어 더욱 돋보이게 하였으며 봉황 아래에는 바위, 물결, 서각, 보문(寶紋)이 배열되어 있고, 오색구름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화려해 보인다. 주위에는 굵은 금사로 선을 넣어 격조있고 정리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그림 93 버선

20세기 / 길이 36cm, 발길이 22.5cm

이 유물은 고운 광목으로 겉을 하고, 안은 거친 광목으로 만든 솜버선이다. 오래 신으면 낡을 것에 대비하여 앞볼과 뒤축에 여러 조각으로 덧대었다. 정교하게 감침질하여 바느질한 것이 확인된다.

버선은 형태적으로는 우리 옷의 곡선미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버선코를 향해 올라온 긴장된 곡선과 발꿈치와 발바닥의 곡선이 완만하고 부드럽다. 버선을 착용한 발 뭍씨 역시 부드러운 선을 선호하여 외씨버선이라고 하여 작고 좁은 발 형태를 추구하였을 뿐 아니라 발의 울퉁불퉁한 선을 드러내는 것을 기피하여 남녀 모두 여름에도 솜버선을 신어 발 뭍씨를 돋보이게 하였다.

또한 버선은 왕과 왕비 등의 대례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흰색을 사용한다. 흰 버선발은 한국복식에서 흰 동정과 함께 우리옷의 정갈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no.	이미지제목	이미지출처	소장기관
1	고구려 여성복식	이태호(1995), 『고구려 고분벽화』, 풀빛, p.108	-
2	고구려 여성복식	이태호(1995), 『고구려 고분벽화』, 풀빛, p.142	-
3	고구려 귀족 여성복식	이태호(1995), 『고구려 고분벽화』, 풀빛, p.142	-
4	통일신라 여성복식	국립경주박물관(2009), 『국립경주박물관』, 통천문화사, p.76	국립경주박물관
5	통일신라 귀족 여성복식	국립경주박물관(2009), 『국립경주박물관』, 통천문화사, p.76	국립경주박물관
6	고려말 조선초의 여성 일상복	심봉근(2002), 『밀양고법리벽화묘』, 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66	동아대학교박물관
7	고려말 조선초 반가 여성 복식	중앙일보사(1985), 『韓國의 美, 20 : 人物畫』, 중앙일보사, p.144	국립중앙박물관
8	고려 왕비 복식	정우택(1998), 『고려시대의 불화』, 시공사, p.293	일본 서복사
9	고려 여성복식	정우택(1998), 『고려시대의 불화』, 시공사, p.156	일본 대덕사
10	고려 왕비의 예복	국립중앙박물관(2009), 『고려시대를 가다』, 국립중앙박물관, p.191	국립고궁박물관
11	17세기 왕비 당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10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2	조선 말기 왕비 네겝당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77	세종대학교박물관
13	공주의 자적 겹당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1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4	공주의 녹색 흘당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8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5	녹색 깎은 당한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3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6	금선단 솜 회장저고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단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저수편』, 문화재청, p.30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7	국만초 봉황문단 직금 저고리	이경자·홍나영·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21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8	지수 회장저고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4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	연두색/옥색 삼회장저고리	이경자·홍나영·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38	이화여자대학교박 물관
20	노란색 도류불수사 삼회장저고리	이경자·홍나영·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3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1	누비 삼회장저고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단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저수편』, 문화재청, p.9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2	팔배래 삼회장저고리	이경자·홍나영·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4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3	1930년대 고름 달린 적삼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경운회, p.25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4	1930년대 저고리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경운회, p.24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5	반회장 솜저고리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경운회, p.24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6	갓저고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5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7	모시 속적삼	이경자·홍나영·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42	이화여자대학교박 물관
28	항라 적삼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경운회, p.27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9	백색 항라 적삼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경운회, p.26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30	무명 적삼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경운회, p.26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31	삼베 적삼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경운회, p.26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32	배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6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3	털배자	이경자·홍나영·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4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34	겹배자	이경자·홍나영·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5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35	마고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6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6	배자	고려대학교박물관(2008), 『고려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고려대학교박물관, p.103	고려대학교 박물관
	마고자	고려대학교박물관(2008), 『고려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고려대학교박물관, p.99	
37	긴 마고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6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8	누비바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7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9	숨 단속곳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8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0	단속곳	박성실·조효숙·이은주(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5, 단국대학교 출판부, p.200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41	개성지방 누비바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8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2	누비바지	경운박물관(2006), 『옛 속옷과 침선 : 겹겹이 깃든 기품』, 경운회, p.57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43	살창고쟁이	이경자·홍나영·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7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44	뒤트임바지	경운박물관(2006), 『옛 속옷과 침선 : 겹겹이 깃든 기품』, 경운회, p.51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45	의례용 치마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5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6	다이트형 흘치마	고려대학교 박물관(2003), 『파평윤씨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II』, 고려대학교 박물관, p.271	고려대학교 박물관

47	스란치마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30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8	남 스란치마	金英淑(1999), 『朝鮮朝後期宮中服飾』, 菴園文化財團, p.98	국립고궁박물관
49	홍 대란치마	金英淑(1999), 『朝鮮朝後期宮中服飾』, 菴園文化財團, p.94	국립고궁박물관
50	전행웃치마	金英淑(1999), 『朝鮮朝後期宮中服飾』, 菴園文化財團, p.63	국립고궁박물관
51	자적 웃치마	박성실 · 조효숙 · 이은주(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5, 단국대학교 출판부, p.148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52	선단치마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경운회, p.66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53	단 접은 치마	경기도박물관(2008),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경기도박물관, p.142	경기도박물관
54	누비치마	경기도박물관(2008),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경기도박물관, p.150	경기도박물관
55	소색 모시치마	이경자 · 홍나영 · 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9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56	옥색 모시치마	이경자 · 홍나영 · 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9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57	다홍 치마	이경자 · 홍나영 · 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88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58	남색 흘 치마	이경자 · 홍나영 · 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285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59	무지기치마	경운박물관(2006), 『옛 속옷과 침선 : 겹겹이 깃든 기품』, 경운회, p.91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60	대습치마	경운박물관(2006), 『옛 속옷과 침선 : 겹겹이 깃든 기품』, 경운회, p.93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61	속치마	경운박물관(2006), 『옛 속옷과 침선 : 겹겹이 깃든 기품』, 경운회, p.94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62	조끼허리 속치마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경운회, p.80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63	앞치마	경운박물관(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경운회, p.30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64	적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307	세종대학교 박물관

		문화재청, p.47	
65	황원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39	세종대학교 박물관
66	홍원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33	세종대학교 박물관
67	자적원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43	세종대학교 박물관
68	수복문 녹원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63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69	덕온공주 원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85	단국대학교 석주 기념박물관
70	민간 원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 · 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0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71	개성 원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 · 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0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72	흑원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 · 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0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73	복은공주 활옷	부산박물관(2005), 『조선여인의 美』, 부산박물관, p.30/31	김귀년
74	민간 활옷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 · 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1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75	몽두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 · 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2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76	여성단령	경기도박물관(2006),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p.9	경기도박물관
77	누비장옷	박성실 · 조효숙 · 이은주(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 출판부, p.79	경기도박물관
78	너울	박성실 · 조효숙 · 이은주(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 출판부, p.92	경기도박물관

79	덕온공주 장옷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복식지수편』, 문화재청, p.8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80	쓰개치마	이경자 · 홍나영 · 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67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81	치네	이경자 · 홍나영 · 장숙환(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7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82	회장저고리와 스란치마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 · 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3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83	반회장저고리와 치마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 · 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4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84	노란반회장 솜저고리와 분홍치마	박성실 · 조효숙 · 이은주(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5, 단국대학교 출판부, p.190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85	경재부인 이씨 초상화	이강철 외(2003), 『역사인물초상화대감』, 현암사, p.57	일본 덴리대학
86	해원의 미인도	중앙일보사(1985), 『韓國의 美, 20 : 人物畫』, 중앙일보사, p.84	간송미술관
87	해원의 월하정인	국립중앙박물관(2002), 『조선시대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p.159	간송미술관
88	갈옷	국립민속박물관(1997),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p.76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89	해녀복 (물적삼, 물소중이)	국립민속박물관(1997),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p.77	문계생
90	허리띠	박성실 · 조효숙 · 이은주(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5, 단국대학교 출판부, p.200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91	왕비 보	金英淑(1999), 『朝鮮朝後期宮中服飾』, 茗園文化財團, p.45	국립고궁박물관
92	봉황흉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 · 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8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93	버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下) : 민속 · 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20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